

사회

중·고생 우울증 검진 의무화 시급

자살방지 학교·병원·지자체 공동 시스템 구축 '광주시의회 자살예방조례'에 내용 포함해야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자살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심리적 전환기인 청소년시기에 자살의 가장 큰 요인인 우울증을 체크, 조기 추적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지역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 2008년 305명에서 2009년 371명으로 1년 만에 20% 이상 증가했으며, 전남도 같은 기간 516명에서 528명으로 늘어나는 등 광주·전남지역에서 연평균 900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최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가장자 자신의 세 가족을 모두 숨지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 18일에는 취업준비를 해오던 서울 모 대학 휴학생이 아파트에서 뛰어 내렸다. 그는 최근까지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광주 모 고교 학생도 간단한 유서를 남기고 빌딩에서 뛰어 내려 숨졌다.

이와 함께 낳은 지 며칠 되지 않은 영아와 함께 투신 자살을 한 산모도 있었다.

없더라도 심리적 변화가 무성한 중·고등학교 시기부터는 의무적으로 우울증 검진 프로그램을 도입,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학생들에 대해 학교와 지역병원·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제정된 '광주시 생명 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에 우울증 검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광주시 자살예방 조례를 발의한 서정성 광주시의원은 "자살의 90%가 우울증에서 비롯된 만큼 청소년기에 우울증 여부를 검진,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 및 치료한다면 불행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었다.

올 들어 발생한 대부분의 자살을 보면 고등학생, 대학생, 주부, 가장 등 연령대 및 직업도 다양하지만 대부분 우울증이나 심한 정신적 갈등을 겪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자살자의 80~90%가 우울증에 의한 것이라는 게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울증에 의한 자살은 개인 차이를 넘어 가족이나 주위까지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울증 인자를 가진 환자들을 사전에 파악,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 위해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동구민의 날' 축제 2일 오전 광주시 동구 용산체육공원에서 열린 '제16회 동구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축제 개막 선언에 환호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나원침 (8305) 김중두



이참에 끊어 볼까

외국산 담뱃값 인상에 금연 열풍 직장인들 껌·초콜릿 등 소비 증가

직장인 이근선(33·광주시 남구 송하동)씨의 연초 금연다짐은 연례행사다. 하지만 매번 일주일 넘기지 못했다.

그러던 이씨는 지난달 28일 또 다시 담배를 끊기로 했다. 각오도 남다르다. 장기 불황 속에 외국산 담배 가격이 200원 오른 탓이다. 이씨는 "담뱃값이 너무 비싸 금연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열풍이 뜨겁다. 금연 보조제 업체는 폭발적인 매출 증가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고, 담배 판매량은 뚜렷한 감소세로 집계됐다.

지난 21일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2위인 BAT코리아는 28일부터 담뱃값을 8%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500원에 판매되던 던힐·켄트·보그 등 3개 상품은 지난달 28일부터 200원 오른 27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담뱃값이 상승하고 애연가들 사이에서 금연 열풍이 불면서 사

탕·껌 등의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다.

북구 두암동 A마트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판매한 은단 매출은 이전보다 107% 증가했다. 서구 화정동 B마트도 껌·사탕·초콜릿 판매량도 담뱃값 인상 이전보다 34%·29%·22%씩 증가했다.

반면, 담배 판매량은 감소했다. 북구 운암동 C마트 담배 판매량은 50% 줄었으며, 서구 광천동 D마트도 담배 판매량이 45% 감소했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주인 이모(56)씨는 "담뱃값 인상 소식 후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 이후 담배 대신 간단히 씹을 수 있는 상품을 찾는 고객들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고물가 시대에 담뱃값마저 인상돼 금연 관련 상품의 매출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주인 이모(56)씨는 "담뱃값 인상 소식 후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 이후 담배 대신 간단히 씹을 수 있는 상품을 찾는 고객들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고물가 시대에 담뱃값마저 인상돼 금연 관련 상품의 매출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동통신기자 exian@kwangju.co.kr



갈아엮는 배추밭 지난해 배추가격 폭등 이후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로 가격이 폭락하자 2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신흥동 신아촌 마을에서 서기춘(57)씨가 시설하우스에서 재배중인 배추를 트랙터로 갈아 엮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번에 걸리면 교도소는 네 차례"

단속 대비 순번 정해 놓고 불법게임장 운영 5명 입건

경찰 단속에 대비해 교도소에 갔다 올 순서까지 정해놓고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은 2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1)씨 등 업주 3명을 구속하고 배모(20)씨 등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업주 강모(22)씨를 수배했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도박자금 마련하려고... 철근·농자재 훔친 절도범 잇따라 검거

영광·광주 남부경찰

전남·전북지역 공사현장과 농촌 들녘 등지에서 각종 건축·농자재·공구를 훔친 절도범들이 잇따라 붙잡혔다.

영광경찰은 2일 오후(34)씨 등 2명에게 절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공범 이모(34)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달 19일 새벽 1시께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 무장~금광간 도로 확·포장 공사현장에서 차량을 이용해 A씨 소유의 철근 2t(시가 150만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전남·전북지역 공사현장과 농촌지역에서 19회에 걸쳐 3200만원 상당의 건축·농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와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도박 자금과 용돈 마련을 위해 대낮에 범행 장소를 몰래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남부경찰도 이날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의 차량과 건설공구를 훔친 김모(45)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9시 40분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한 길가에 주차돼있던 최모(53)씨의 1t 트럭 한 대와 차량에 실려있던 건설공구 등 300만원 상당을 훔쳐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유통기한 지났다" 위험 돈 뜯은 남녀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미화 판사는 2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았다"며 마트 업주를 상대로 돈을 뜯어낸 혐의(공공공갈)로 기소된 최모(37)씨와 문모(여·47)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등은 일부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사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점이 인정된다"며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하

고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은 유예했다"고 판시했다.

호프집 주인과 종업원인 최씨는 문씨와 함께 지난 2월 26일 오후 1시45분께 북구 매곡동 모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산 뒤 "누나(문씨)가 우유를 마시고 탈이 나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2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4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행기자 golee@

안마시술소 37곳서 2000만원 갈취 30대 구속

광주서부경찰은 2일 전국의 안마시술소를 돌며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홍모(34)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5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안마시술소에서 업주 한모(48)씨에게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것을 포

함해 서울과 광주, 여수 등 전국의 안마시술소 37곳에서 모두 2000만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와 한씨는 안마시술소에 들어가 뒤 "사위실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는데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이냐"며 업주를 협박해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기자 kimho@

수백만원 고스톱 도박 교사·공무원 등 입건

목포경찰은 2일 수백만원의 관돈을 걸고 속칭 '고스톱' 도박판을 벌인 목포 모 고교 교사 최모(47)씨와 모군청 직원 강모(44·7급)씨 등 40~70대 남성 6명을 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1일 밤 12시20분부터 이날 새벽 1시까지 목포시 용화동 김모(48)씨의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관돈 800만원을 놓고 점당 1000원짜리 고스톱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권기자 dss6116@

전남대 여수캠퍼스 대학생 변사체 발견

지난 1일 낮 12시30분께 여수시내 전남대 여수캠퍼스 모 학과 연구실에서 4학년인 오모(27)씨가 바닥에 누워 숨져 있는 것을 동료 학생들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와 오씨는 지난 1일 여수공고에서 치러지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시험 준비를 위해 3주전부터 이 연구실에서 친구와 함께 지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의류매장서 바지 꺼내고 나오다 달미

○대형 아울렛 의류매장에서 고가의 바지를 훔쳐 입고 나온 60대가 경찰서행.

○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손모(64)씨는 지난 29일 오후 4시께 광주시 서구 모 아울렛 김모(여·25)씨의 의류매장에서 16만8000원 상당의 바지 1장을 탈의실에서 몰래 훔쳐 입고 매장을 빠져나왔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이날 바지 2장을 들고 탈의실로 들어가 손씨는 바지 1장을 원래 입고 있던 바지 안에 끼입은 뒤 1장 값만 지불하고 나온 것으로 확인.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35년연속 합격자수1위

상위권대학편입
전남대편입

전문강좌
영어.수학.TEPS

그동안 14만명 합격자 배출! 2011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원치않는 대학 재수보단 편입으로 인생역전!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뒤 062)227-8088 개강 매월1일 [kimyoung.co.kr]